

국별 리포트

#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sup>2</sup>	GDP (년도)	2,550억 달러
인구 (2012년도)	11.20 백만명	1인당 GDP (년도)	22m 757 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US기준) (2012년도)	.78

-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 수준이고, 인구는 1,120만 명 정도로 파악됨.
- 2009년 10월 새로 출범한 사회당(PASOK) 정부가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 정부채무가 GDP의 113.4%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는 IMF 및 EU와 2010년 5월에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1,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과 1,070억 유로 규모의 민간채권단 채권 탕감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스는 1952년에 NATO에 가입했으며, 1981년 및 2001년에 각각 EU 및 유로존에 가입함.

## II. 경제동향

### 1.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그리스 금융부문, 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 그리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대출 증가, 국채보유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그리스 금융부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2011년 7월 15일에 실시된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제2차 재무건전성평가(stress test)에서 총 91개 은행 중 7개 은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그리스의 Agricultural Bank 및 EFG Eurobank 두 개 은행이 포함됨. 2011년 8월 29일 EFG Eurobank는 핵심자기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 기준 충족을 위해 그리스의 Alpha Bank와 합병계획을 발표함.
- 그리스 4대 은행은 2012년 5월 헬레닉금융안정기금(HFSF, 그리스 은행권 재자본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을 통해 180억 유로를 지원받음.
- 그리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이 2014년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10%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HFSF의 금융지원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

- 그리스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회원국 경제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역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유럽 경제권이 그리스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46%,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48%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 독일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12% 및 14%를 차지하여 독일이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EIU, Country

Report, September 2011).

- \* 주요 수출대상국('10): 독일(12%), 이탈리아(11%), 사이프러스(7%), 불가리아(7%), 미국(5%), 영국(5%)
- \* 주요 수입대상국('10): 독일(14%), 이탈리아(13%), 중국(7%), 프랑스(6%), 네덜란드(6%), 벨기에(5%)

####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 2001년 유로존 가입 전 재정수지 적자는 1997~2000년 평균 GDP 대비 -4.4% 수준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7.7% 수준으로 확대됨. 특히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5.6%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0년 -10.5%, 2011년 -9.1%, 2012년 -7.5% 수준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 2001년 유로존 가입전 경상수지 적자는 1997~2000년 평균 -5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평균 -253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함. 2001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 확대되어 2008년에는 -512억 달러(GDP 대비 -14.9%)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년 개선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148억 달러(GDP 대비 -5.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나. 성장 잠재력

##### □ 2008년 이후 5년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성장잠재력 위축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12년 경제성장률이 -6.0%를 기록하는 등 2008년 이후 GDP 규모가 26% 축소됨.
- 경제성장률 추이: -0.2%(2008)→3.3%(2009)→3.5%(2010)→6.9%(2011)→6.0%(2012)

#####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말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2010년 초에 발발한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FDI 유입이 위축됨. 2008년 57억 달러를 기록한 FDI 유입액이

2009~11년에는 평균 14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그리스 재정위기 여파 지속에 따른 투자신뢰도 하락으로 2012년 상반기 FDI는 2억 달러 유출을 기록함.

#### □ 기업경영여건평가는 중위권 수준

-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Index)에서 그리스는 2009년 97/183위, 2010년 101/182위, 2011년 100/183위, 2012년 78/185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중위권(OECD 고소득국 중 최하위)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사업개시, 재산등록, 계약이행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수준임.

### 다. 정책성과

#### □ 사회당 정부, 과거 정부들의 통계수치 조작사실 공개로 경제위기 촉발

- 2009년 10월 총선 결과 집권여당으로 출범하게 된 사회당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통계수치 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이고 정부채무가 GDP의 113.4%인 2,693억 유로에 달한다고 언급하면서 유럽재정위기의 발단이 됨.
- 그리스 정부는 2001년 유로존 가입 당시 정부채무 등의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로존 가입 이후에도 재정개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선심성 경제정책을 남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남.
- \* 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 정부채무 비중을 60% 이내로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그리스의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채무 규모가 공개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외채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 그리스 의회, 긴축재정정책 지속 추진

- 그리스는 EU 및 IMF가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09년 -15.6%에서 2012년 -7.5%까지 하락함.
- 2012년 11월 세금인상 및 연금삭감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135억 유로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3년 1월에는 25억 유로 규모의 추가 증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등 긴축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

#### □ 그리스 정부 채무는 GDP의 160% 상회, EU 회원국 중 최고수준

- 그리스 정부채무는 2011년말 GDP 대비 170.6%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말 GDP 대비 166.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외채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112.9%(2008)→129.7%(2009)→148.3%(2010)→170.6%(2011)→166.8%(2012e)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2012년 5월 총선 결과, 연정구성 실패

-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
  - 신민주당은 18.9%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되었으나 108석 확보에 그쳤고, 다수당이었던 사회당은 13.2%의 득표율로 제3당(41석)에 그침.
  - 반면, 긴축정책 반대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한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는 16.8%의 득표율로 52석을 얻어 제2당이 됨.
- 제1당이 된 신민주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한 후 시리자, 사회당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함.

#### □ 2012년 6월 2차 총선 결과, 신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었으나 정국불안 잠재

- 6월17일 2차총선 결과 신민주당이 29.66%의 득표율로 129석을 차지하였고, 제3당인 사회당(33석), 제6당인 민주좌파(17석)와 연정을 구성함.
- 한편, 시리자가 26.89%를 득표하며 제1야당(71석)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정국불안의 중대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음.
- 연정은 원칙적으로 EU와 IMF가 요구한 긴축재정안의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최초 구성시 총의석 300석 중 179석을 차지하였으나 긴축재정안에 대한 반대로 12개 의석이 이탈하는 등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
-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과 민주좌파 내부에서는 긴축재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며,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2012년 11월 구조조정 및 재정긴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일부 해소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긴축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 빈번

-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 삭감, 세금인상, 연금 개혁 등을 포함한 긴축재정정책 및 국유자산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2년 11월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통과시키자 10만명의 시위대가 의회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리스 양대 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지속되고 있음.

####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초래

-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시행,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여 2011년

에 17.7%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11월에는 27%로 급상승하였음.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초래됨.

### 3. 국제관계

#### □ EU 회원국의 그리스 등 남유럽 지원에 따른 EU 내 결속력 약화

- 그리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EU, IMF 등의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등 EU 회원국과의 관계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국민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스 내부적으로 구제금융 조건 이행에 따른 경기침체 및 사회불안이 심화되면서 EU 회원국 간 갈등요소가 상존함.

#### □ 터키 및 마케도니아와 긴장관계 지속

- 에게해 지역의 영해권을 둘러싼 그리스와 터키의 갈등은 그리스가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에 처하면서 터키와의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에게해 지역의 유전 발굴을 둘러싼 갈등 자체는 해결이 요원함.
- 마케도니아의 국가명 및 영토를 둘러싼 그리스-마케도니아 간 갈등에는 이전처럼 무력위협이나 경제제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NATO 및 EU 가입을 반대함에 따라 긴장상태가 계속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에 따라 EU 및 IMF의 자금지원 계속

- 그리스는 2012년 11월 재정긴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국채 Buy-back을 통해 211억 유로 규모의 민간채무를 탕감받는 등 EU와 IMF가 요구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이행함.
- EU와 IMF는 2012년 11월, 그리스가 액면가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에 국채를 재매입해 민간부문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차기 구제금융 분을 집행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그리스는 동년 12월 약 319억 유로 규모의 국채 Buy-back에 성공함. 국채 Buy-back은 그리스 정부채무를 2020년까지 GDP 대비 128%(목표치 124% 수준)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EU는 2012년 12월 491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하고 이중 343억 유로를 지급했으며, IMF 또한 2013년 1월 32.4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8차분)을 지급함.

#### □ 추가 구제금융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

- IMF는 2013년 1월 그리스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현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리스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96억 유로를 더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경우 그리스 재정 위기 이후 구제금융 총 규모는 2,550억 유로가 넘는 수준이 됨.
- IMF는 추가 구제금융 외에도 EU 채권국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금 및 국채 보유분에 대해 25% 원리금 탕감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함.
- 추가 자금지원 및 채권 원리금 삭감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자국내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독일은 2013년 9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
- IMF는 구제금융 지원액 상환이 가능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상 EU가 추가 구제금융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금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수개월

내에 EU의 추가지원 논의가 불가피함.

## 2. 국제시장평가

### □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말 이후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수차례 하향 조정했으며 2013년 2월 기준 그리스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S&P: BB-(‘11.3월) → B(‘11.5월) → CCC(‘11.6월) → CC(‘11.7월) → SD(‘12.2월) → CCC(‘12.5월) → SD(‘12.12월) → B-(‘12.12월)
  - Moody’s: B1(‘11.3월) → Caa1(‘11.6월) → Ca(‘11.7월) → C(‘12.3월)
  - Fitch: B+(‘11.5월) → CCC(‘11.7월) → C(‘12.2월) → RD(‘12.3월) → B-(‘12.3월) → CCC(‘12.5월)
- S&P는 2009년 12월~2011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CC로 하향 조정함. 2012년 2월 27일, S&P는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집단 행동조항(CACs)이 삽입된 점을 들어 그리스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SD)로 강등하였으나, 동년 5월 2일에는 그리스 부채 감축 등을 반영하여 CCC로 상향 조정함. 2012년 12월 5일 그리스의 국채 Buy-back 계획이 나온 직후 신용등급을 SD로 강등하였으나, Buy-back 조치가 완료되고 구제금융 지원 재개가 승인되면서 동년 12월 18일 신용등급을 B-로 상향 조정함.
- Moody’s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09년 12월 22일에 A1에서 A2로, 2010년 4월 22일에 A3로, 6월 14일에 Ba1으로 각각 하향 조정함. 이후 2011년 3월 7일에 B1, 6월 1일에 Caa1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으며 7월 25일에는 민간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Ca로 하향 조정함. 2012년 3월 2일에는 민간채권단에 대한 채무조정을 반영해 그리스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 수준인 C로 강등함.
- Fitch는 2009년 10월~2011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B+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1년 7월 13일에는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지연, 그리스의 거시경제전망 악화 등을 이유로 CCC로 추가 하향 조정함. 2012년 2월 22일, 그리스 정부의 국채교환조건 등을 반영하여 그리스 신용등급을 C등급으로 하향 조정 한 후 3월 9일에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RD) 등급으로 강등함. 동년 3월 13일, 국제  
교환 성공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B-로 상향 조정한 이후 5월17일 정치불안에  
따른 유로존 탈퇴가능성 등을 이유로 CCC로 다시 강등함.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Stable)	D2 (Negative)
OECD	등급없음 (2013.01.)	0등급 (2012.01.)
S&P	B- (2012.12.)	SD (2012.12.)
Moody's	C (2012.3.)	Ca (2011.7.)
Fitch	CCC (2012.5.)	B- (2012.3.)

**□ 그리스 국채수익률, 지난 1년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지난 1년(2012년 3월 ~ 2013년 2월)간  
하락세를 보이며 동 기간 중 최고 30.6%, 평균 19.8%, 최저 10.0%를 기록함.  
2013년 2월 25일 기준으로 동 국채수익률은 10.9%를 기록해 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4.49%)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0년 6월 18일 (북한과는 미수교)**

- 양국간 수교역사는 긴 편이며, 무역, 과학기술,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그리스 주요 협정 체결현황**

- : 무역협정(1974), 과학기술협정(1987), 항공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이  
중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2006), 해상협정(2006), 경제협력협정(2010)

**□ 2012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 증가**

○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및 2009년말에 발발한 그리스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60.4% 급감한 12.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1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교역 규모는 2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7% 증가했으나 아직 200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함.

○ 2012년 기준 그리스는 우리나라의 36위 수출대상국, 73위 수입대상국임.

\* 한국-그리스 교역규모 추이

: 15.4억 달러(2008)→32.6억 달러(2009)→12.9억 달러(2010)→14.4억 달러(2011)  
→22.6억 달러(2012)

□ 대 그리스 직접투자 실적(2012년 9월말): 11건, 783만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직접투자 실적은 2012년 9월말 누계 기준으로 11건, 783만 달러로 직접 투자규모가 미미함.

- 직접투자실적: 13만 달러(2008)→61만 달러(2009)→3만 달러(2010)→없음(2011)  
→3만 달러(2012)

<표 2> 한·그리스 교역 규모

단위: 천달러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1,208,817	1,349,593	1,908,68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
수 입	81,642	90,891	247,850	석유제품, 기호식품, 종이제품, 모피

V. 종합 의견

□ 그리스는 유로존 경제권 편입 이후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었음에도 정부의 통계수치 조작으로 이를 은닉해 왔으나 '09년 10월 총선 이후 사회당 정부가 공개하며 재정위기가 촉발됨.

- 2012년 5월 총선 결과 신민주당, 시리자, 사회당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후 6월 2차 총선에서 신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됨. 그러나 구제금융조건 재협상 등과 관련하여 정치불안이 우려되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그리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위축되었음. 그리스는 유로존 경제권 편입 이후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국민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스 내부적으로 구제금융 조건 이행에 따른 경기침체 및 사회불안이 심화되면서 EU 회원국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음.
  
- 2012년 11월 그리스 정부가 긴축재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국채 Buy-back을 실시하는 등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EU 및 IMF는 추가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하였음. 그리스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확산되며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말 이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연이어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2013년 2월 기준 그리스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조사역 이주은 (☎02-3779-5712)  
 E-mail: june@koreaexim.go.kr